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말 기획공연 '풍성'

대형뮤지컬 '엘리자벳' ·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클래식공연 등 다양한 장르 5편 진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연말 기획공연 5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28일 전당에 따르면 12월 기획공연은 대형 뮤지컬과 클래식 거장전 등 송년기획으로 꾸민 특별한 무대들이다. 장르도 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연극 등 다양하게 구성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오붓한 연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무대는 12월 4일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이다.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노랫말과 절절한 가락으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장사리파의 4년만의 만남!

가요도 창도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창법과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울림, 그리고 가슴에 저머 드는 슬픔 뒤에 남는 따스함과 희망이 그가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다.

12월 9~11일 모악당에서 마련한 두 번째 선물은 대형뮤지컬 '엘리자벳'이다.

국내 초연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엘리자벳'은 올해 공연을 마지막 시즌으로,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어서 이번 공연이 10년 노후를 집대성한 피날레 무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히 육주현을 비롯해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 다시는 보기 힘든 화려한 라인업이 무대를 가득 메운다.

12월 16~18일 공연하는 '꿈속에서 꿈을 꾸다'는 전북을 대표하는 연극단체인 창작극회의 60주년을 맞아 창작극회의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희곡들을 재조명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만의 전문적인 기획력과 기술력을 합쳐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제작된 작품이다.

'라이어 1탄'도 12월 21~25일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연극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다'를 느끼게 하는 코미디 연극의 정석으로 불리는 '라이어'는 한국에서 20년째 공연을 하고 있는 국내 최장기 공연단체 '국민연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두 여인과의 이중생활이 들뜬날까봐 시작된 사소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며 진실과 거짓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라이어'는 관객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한다. 수험생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미를 장식할 대형 클래식공연으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젊은 거장들 '비르투오지'가 12월 23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물할 것이다.

사라장은 그녀가 이끄는 챔버앙상블과 함께 비탈리의 사콘느 8단조,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 BWV1043, 비발디 사계 전곡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18세기 바로크 음악의 대표 곡들을 연주한다. /장은성 기자

'남원 출토 유물 특별전' 개최

향토박물관서 아막산성 발굴 유물 · 가야 유물 소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은 2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남원 출토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의 주제는 '아막산성의 발굴성과와 가야 유물의 소개'이며 가야 유물과 아막산성 발굴 유물 및 이미지 패널 등을 중심으로 하여 50여점의 자료를 전시한다. 전시 유물 및 이미지들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대여 및 자료 협조를 받았다.

전시품은 모두 남원 동부권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며 특히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막산성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특별 전시하였다. 아막산성은 운봉고원에 자리한 고대 산성으로 문헌에 따르면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가 이곳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아막산성 내 집수시설은 당시 정교한 토목 기술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막산성의 집수시설 내에서는 각종의 목재 유물들과 다양한 동물들의 유체가 나왔고, 산성 내에서 다수의 의면, 토기편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옷철의 원료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옷철 원료를 담은 1,500여년 전의 토기는 남원 원기 문화의 전통과 유구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번 전시품들은 가야 출토 유물들과 아막산성에서 발굴된 기와편, 그릇편 등이 중심이다. 아막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이미지 패널을 통해 남원시민과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당시 고대사의 현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깨달은 수행자, 나한: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내년 2월 26일까지 다양한 모습 석조 나한상 만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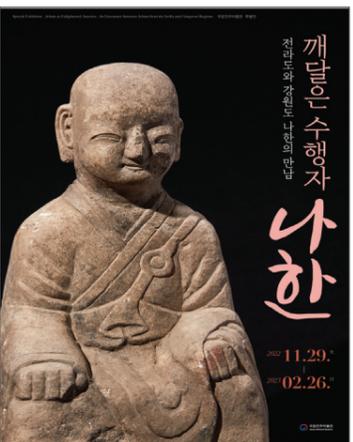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9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특별전 '깨달은 수행자, 나한: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남원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등 총 90점의 나한상이 전시된다. 수행을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른 나한의 다양한 모습을 석조 나한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강원도와 전라도의 석조 나한상을 모았다. 나한은 부처와 보살에 비해 도상의 법식에서 자유로워 얼굴과 자세 표현이 다채롭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재료에 새겨진 나한의 얼굴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은 2001년에 영월의 절터에서 발견됐는데, 갖가지 표정 위로 해탈한 성자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회로에라이 표현된 근근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라도 나한상들도 이에 못지않은 조형미와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서봉사 터 나한상(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미소년을 닮은 말끔한 미소, 불회사 나한상(국립광주박물관 소장)의 생각에 잠긴 얼굴들,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의 굳건한 등 지역별로 사용했던 석재와 조각 솜씨의 차이에 따라 나한상의 다양한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 마지막에는 나한의 깨달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깨달은 수행자, 나한: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포스터

음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영상을 상영한다. 한편, 1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홍진근 관장은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과 마주하며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장용철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관에서 '장용철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지난 전시 '산수에 노닐다'에서 무위자연 즉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통해 속세에 지치고 낙하해 진 현대인의 자유로운 삶과 내면의 성찰에 대해 이야기했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세계 '무릉도원'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면적 의미의 무릉도원으로 그 모티브는 백두대간의 일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땅 백두대간에서 작가만의 무릉도원을 작품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대작에서는 거시적으로 바라본 백두대간 중 봉의 설악산 울산바위, 여름의 오대, 가을의 두타연, 겨울의 태백산 설경구간이다. 설악산 울산바위의 단아한 봄, 습윤한 여름 안개에 쌓인 상원사, 메미른 듯 거친 가을 두타산의 바위 눈 덮인 태백의 겨울 산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현한다. 한국화만의 특징인 심원, 평원, 고원법에 따른 시점의 변화를 하나의 화면에 구사하고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부감법을 사용해 편평된 시각의 한계를 넘어 웅장한 듯 담담한, 척박한 듯 절묘한 한반도의 산맥들을 표현했다.

또 소품에서의 화두는 빛이다. 빛과 자연의 속살을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장은성 기자

완주 마을미디어제작단,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대상'

인생다큐 '외울마을 여덟할매' 호평

완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제작단이 만든 인생다큐 '외울마을 여덟할매'가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가 주관한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외울마을 여덟할매'는 고산면 외울마을 경로회관에서 만난 어르신 여덟 분의 인생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25분 분량의 이 영상은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풀어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마을미디어제작단은 완주미디어센터가 진행

한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친 주민들로 어르신들의 솔직한 얘기를 끌어내고자 사전조사와 인터뷰이로서의 많은 준비를 했다. '외울마을 여덟할매'는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제작단 이경선씨는 "기대도 안 했는데 수상 소식에 깜짝 놀랐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작품인데 그 취지를 좋게 봐주시길 같다"며 "마을과 이웃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기록할 동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미디어센터는 내년도 마을미디어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실버마이크 전북권' 올해 마지막 공연 개최... 100회 일정 마무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 11월 공연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11월 공연은 진안고원시장(11월 29일, 오전 11시)과 임실관촌원광수양원(11월 30일, 오후 2시), 그리고 군산 구시청광장(12월 3일, 오후 1시)에 각각 열린다. 각 공연별로 5개 팀이 참여, 악기 연주와 노래,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실버마이크 전북권은 이번 11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00회의 공연 일정을 마치게 된다.

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류상록 본부장은 "지난 7개월간의 실버마이크 공연을 함께 해준 공연팀을 통해 실버 세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관심과 성원 덕분에 100회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